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풍수해·산사태·물놀이 3대 분야 중점 관리

-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재산 피해 예방 위해 재난 유형별로 관리대책 고도화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탐방객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6~7월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올해 6월 강수량: 평년 101.6mm~174.0mm 보다 높을 확률 40%

올해 7월 강수량: 평년 245.9mm~308.2mm과 비슷할 확률 50%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4곳)을 대상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 점검 및 전문구조인력(269명)을 운영하여 인명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사용연한이 경과된 구조장비 교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난해(2024년) 지리산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이달 13일부터 월악산 등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 실시간으로 강우를 계측·기록하여 설정된 위험치에 도달할 경우 하류 지역에 자동으로 경보 발령과 안내 방송 실시(전국 국립공원 284곳에 설치)

<산사태 예방대책>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사태 위험도 조사,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지역을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산사태 저위험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를 더욱 정교화한다.

특히, △산사태 기존발생지(395곳), △산사태 취약지역(429곳), △대형 산불피해지역(주왕산·지리산)을 대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하고, 예비특보 시에도 국립공원 사무소장의 판단으로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인 주왕산·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영상조사 8차례, 현장조사 6차례를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토양 유실 우려가 높은 20곳에는 긴급히 식생그물망(네트)을 설치했다.

※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산불발생지 내 탐방로 및 민가가 없으므로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적음

아울러 출입통제 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탐방객이 없도록, 주요 입구(탐방로, 샛길 등)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 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한편,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난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시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 제한 여부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6.1.~9.30.) 동안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국립공원 내 계곡 중에서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안전요원 배치와 경고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입수 방지 그물망, 안전로프, 구명환 등의 안전시설도 촘촘하게 배치해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지자체·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 구축, 구조장비 공동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고,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7~8월)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구명보트, 수상들것 등 수난구조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해역 안전사고 우려지역*에는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위험 시간대(밀물) 현장 경고 방송을 송출하여 물놀이 및 해루질로 인한 해안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 태안해안 3개소(학암포, 방포, 바람아래), 변산반도 2개소(하섬, 유동)

아울러,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에는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등 맞춤형 예방운동(캠페인)과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탐방객의 안전은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5년 국립공원 풍수해 예방 대책(요약)
 2. 2025년 국립공원 산사태 예방 대책(요약)
 3. 2025년 국립공원 여름철 물놀이 예방 대책(요약).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316)
		담당자	사무관	이재윤	(044-201-7312)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책임자	처 장	신정태	(033-769-9580)
		담당자(풍수해)	계 장	신달호	(033-769-9593)
		담당자(산사태)	차 장	최수원	(033-769-9591)
		담당자(물놀이)	계 장	한완재	(033-769-9584)



□ 풍수해 예방 대책

- (일일재난 상황예보) 직원 재난관심도 증대 및 탐방객 홍보를 위해 기상특보 발효현황, 재난관련 주요 이슈, 위험요인을 일 1회 전파
- (집중관리)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 지역(144개소), 재난취약지구(915개소) 재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피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 *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정비, 인명구조함, 낙석방지시설 등
- (재난예경보시설 관리) 재난예경보시설 606개소 전문업체 및 사무소 담당자 정기점검을 통한 정상 작동상태 유지·점검
- (정보제공) 호우·태풍 기상특보 및 풍수해 위기경보 발령 현황, 집중호우·태풍 국민행동요령 등을 누리집, SNS, 문자전광판 활용하여 정보제공

□ 풍수해 대응역량 제고

- (장비)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수방자재(포대, 덮개 등 22,428점) 및 응급복구 장비(굴삭기, 트랙터 등 285점) 배치
- (인력)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인력* 269명 운영 및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현장훈련 실시
 - * 특수산악 구조대 52명, 탐방안전 운영직 6명, 탐방안전 공무원 211명
- (대응) 재난피해 우려 시 지정된 대피장소로 탐방객 대피 및 인명 피해 우려 시 소방·해경 인계를 통한 지역의료기관 이송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통제)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특보 발표 이전부터 탐방로 통제 및 야영장·대피소 취소 등 선제적 대응
- (조치) 인명피해 발생 등 심각한 재난 발생 전조 시 선 초동조치 (통제선 설치, 탐방로 우회, 응급복구 등) 후 보고 시행

□ 산사태 발생지역 집중관리

- (산사태발생지) 산사태 발생이 확인된 지역은 탐방객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인근 탐방로, 민가에 피해 우려 시 신속히 복구
 - * 인근 탐방로에 현장 안내 인력을 즉시 배치하여 탐방로 우회를 유도
- (대형산불지역) 최근의 대형산불지역(주왕산·지리산 등)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도*를 제작하여 산사태를 예측하고 방지대책 실행
 - * 조사 및 사면 안정성해석을 통해 산사태 발생 등급을 표시한 지도

□ 산사태 위험도 기반의 맞춤형 전략

- (위험도 조사) 정기(연2회), 수시(태풍, 집중호우 발생 전후) 조사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실시, 산사태 발생 여부 및 위험도 분석
 - * 민가와 사찰, 접근이 어려운 지역, 낙석 여부 등 광범위하게 조사
- (맞춤형 전략) 산사태 위험도를 기반으로 구역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한 예측 가능한 피해 예방과 안전한 탐방로 이용 도모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산사태 저위험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단기(1회/1년), 중기(1회/3년), 장기(1회/5년)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 • (조치)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필요시 인공 복구 및 탐방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현장점검을 통해 현황파악 및 식생네트 설치 • (통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탐방로 우선통제 및 집중호우 전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구조물 훼손 보완 등 사전예방적 보호조치 • (안내) 재해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산사태 행동요령 안내

□ 과학기술 기반 산불 대응 고도화

- (산사태 자동 감지 프로그램) 위성영상 분석을 기반으로 실시간 산사태 발생 확인이 가능한 산사태 자동 감지 프로그램 개발(~12월)
- (경보체계 고도화) 노후된 자동우량경보시설*을 교체하고 통신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피안내
 - * 산간 계곡 등지에서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관측, 일정 기준 이상의 강우 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 안내방송을 송출

□ 계곡 및 해수욕장 관리대상 250개소

계	산악형(계곡)		해상·해안		비 고
	물놀이 위험지역 (출입금지)	물놀이 관리지역 (한시적 허용)	해수욕장	연안해역	
250	100	110	36	4	

□ 산악형 국립공원 안전관리

- (통제·관리) 장소별 위험요인(수심, 급류 등)을 안내하고 입수 차단 및 탐방 통제를 위해 출입 통제 구간 차단시설* 설치

* 입수방지 그물망 23개소, 재난안전선(부표 등) 126개소, 목재·로프난간 등

- (장비활용)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82대)를 활용하여 불법 출입자 실시간 자동 감지 및 현장 경고 방송 송출

- (인력배치) 관리·위험구역 등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에 안전 인력 집중배치*로 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안전요원은 현장 순찰 시 레스큐 튜브 등 안전 물품을 반드시 소지하고, 익수사고 취약 시간대(12~15시) 고정배치 및 순찰 강화

□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안전관리

- (통제·관리) 조석위험경보시스템*(5개소), 야간 식별 부표(2개소), 안내간판 등 안전시설 운영을 통한 위험지역 통제 및 안내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밀물시간) API 연동으로 위험 시간대 현장 경고 방송 송출

- (장비활용) 구명보트 등 수난구조장비 330점* 정상 기능 점검 및 현장 배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 구명보트 2, 제트스키 4, 구명조끼 231, 수상 들것 11, 레스큐칸 30, 드로우백 52

- (인력배치)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7~8월) 시기에 맞춰 내부 직원 및 안전관리 전담 인력 현장 배치 및 순찰 강화

□ 여름철 물놀이 안전 교육·홍보

- 탐방객 대상으로 물놀이 요령 및 안전 수칙 등 교육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www.safetyreport.go.kr/) 활용